



지자체 지역특산물로 '차' 육성 활발

와 함께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다. 주민과 공무원 들을 중국과 일본 등으로 견학 보냈고, '대나무잎 을 이용한 식품 개발연구' '죽엽의 약리효능 연구' 등의 연구영역을 통해 대나무가 고품질, 뇌졸 중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2003년 11월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 한 땃잎차는 '웰빙' 열풍과 '그린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국내에 시판되기도 전에 해외에 수출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한해 담양 지역에서 만 10여 톤의 생 대나무 잎이 소요될 정도다. 또한 담양군은 '대나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과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 이다.

시 관계자는 "땃잎차는 피를 맑게 해주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며 "땃잎차는 올해 30만 달러, 내년 50만 달러 정도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 국화차

시 지원 아래 다양한 신상품 개발

경북 안동시를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화밭이다.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를 비롯 해 금계리, 성곡리 등에 펼쳐진 1만여 평의 국화 밭은 국화가 만개하는 가을이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이 지역의 국화재배가 활성화 된 것은 토 질과 일교차 등 국화 자생에 알맞은 기후조건 때문. 다른 지역보다 국화의 향과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을 국화를 따러 찾잔에 띄운 국화차는 예로부터 몸의 열을 내리고 두통과 혈액순환 등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사에서도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국화차를 즐겨 마셨다고 전한다. 이러한 국화차의 전통을 되살린 국화 재배농가는 최근 국화차를 비롯해 금국차, 꽃말실 국화차, 황국차, 가을신선 국화차 등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 안동시 역시 국화 생산자가 국화 차를 제조,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하는 등 국화차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무안 연차

축제, 가공공장 설립 등 활용 다각화

전남 무안군은 일찍부터 '연(蓮)'의 상품성에 눈 뜨고 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왔다. 무안 군 일로읍에 위치한 화산 백련지는 10만여 평 규모로 중앙 최대의 백련 서식지. 60여 년 전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저수지였으나 영산강 하구둑이 건설된 후 백련지로 탈바꿈했다.

무안군은 백련지를 중심으로 연꽃이 피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무안 백련대축제'를 개최해 백련 알리기 행사를 한해 연꽃차, 연잎 차, 연향차, 연근과립차 등 연을 활용한 다양한 차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인근의 합평군도 해보면 용천사와 합평을 등에 백련 지를 조성하고 백련차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등 백련을 활용한 차 산업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전북 부안군은 들국화차를, 양장 주 산지인 경북 예천군은 뽕잎을 이용한 '침뽕잎차'를 출시해 홍보에 나섰다. 바야흐로 '차'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의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령 기자

주홍길 교수 '운남 보이차' 펴내

우리나라 차인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킨 보이차. 그러나 갑작스런 유행만큼이나 그 해악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 시판되는 보이 차 중 '가짜'가 많다거나, 그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진짜' 보이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만 믿고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일 것이다.

중국 국가차에서 자격 심사위원이자 윈난성차산업 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홍길 교수(중국 윈난농업대학)는 '운남 보이차'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 온 전문가다. 주 교수는 최근 국내에 소개된 <운남 보이차> 서문에서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보이차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며 "21세기 건강음료인 보이차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 생산지 효능 등 정보소개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길"

후발표자인 보이차는 그 독특한 맛과 향으로 수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압을 내리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를 막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보이차에 대해 주 교수는 윈난 지역의 차 자생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차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동안 차에 소량의 물을 뿌렸고, 이로 인해 냉 발효가 진행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 교수는 육안으로 보아 곱팡이가 뿔거나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것은 좋은 보이차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공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이차는 우려낸 찻물의 빛깔이 맑고 깨끗하며 맛이 달고 부드럽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보이차의 역사와 주요 생산지역, 보이차를 만들기 적합한 차나무는 어떤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운남 보이차의 화학성분과 주요 효능, 시대별 보이차의 흐름, 보이차 다예 등도 짚어본다. 특히 '보이차의 올바른 구매와 보관'에서는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할 때 알아야 할 보이차의 연대별 특징과 찻잎 구별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여수령 기자



차, 농가소득의 '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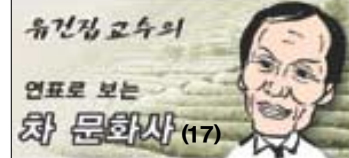
▶전남 담양 땃잎차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산업과 연계

대나무의 고장 전남 담양군은 최근 대나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 중 차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땃잎차. 담양군과 전남대가 3년여에 걸쳐 지

난 2002년 개발한 땃잎차는 지난해 티월드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후 스위스 뱀부슈링크사에 10만 달러(한화 1억 2천여만여원)어치를 수출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이 땃잎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과 4-5년 전이다. 80년대 이후 플라스틱 제품과 값싼 중국 제품에 밀려 대나무 수요가 급격히 줄자 군은 대나무의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 업체, 학교



고려 모든 의식에 사용...연고차 절정기 중국

등극하면서 차 전매제를 다시 실시하고 차의 고급화를 촉진하게 된다. 선가(禪家)에서는 '선원청규'를 관례화하고 <몽계필답> <북원공다록> 등의 다서도 계속 나와 연고차의 절정기를 맞았다. 일본은 사찰이나 왕실에서 차를 마신 기록이 간혹 보이고 투다(鬪茶)의 풍습도 일부 있었다.

① 의천이 미복(微腹)으로 송나라에 가서 천태종의 경륜을 터득하고 불교경전 1천여 권을 가져왔다.

② 통도사 사적록에 절터의 사방들레 12곳에 장생표를 세웠다. 동을산 쪽에 있는 다촌(茶村)은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던 곳이다.

③ 이정공이 선지(宣旨)를 받들어 흥양비를 세우는데 비단, 은그릇, 다포, 말안장 등을 내렸다.

④ 왕(숙종)이 왕비와 원자 등을 거느리고 삼각산 승가굴(상장사)에서 차를 올리며 차를 내렸다.

⑤ 최사추와 궤여가 예종에게 차를 하사받고 시를 지었다.

⑥ 이 책은 고승(高僧)이 찬한 것으로 남차, 용차(龍茶), 소단(小團), 석유(石乳), 각도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⑦ 휘종황제 조길은 송나라 연고차의 모든 것을 기록한 <대관다론>을

저술했다.

⑧ <동재기사>는 범진(范鎭)이 찬한 책으로 이 시대의 다세와 문정차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⑨ 차를 국가에서 권장.

⑩ 심괄: <몽계필답(夢溪筆談)>에 당시의 다세와 교역이 적혀있다.

왕번: 송대 대학자로 <선화북원공다록(宣和北苑真茶錄)>에서 건천차(建川茶)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

⑪ 진사도: 송대 시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다경서(茶經序)'를 남겼다.

⑫ <대관다론>은 송차(연고차)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한 책이다.

⑬ 채경은 송대인으로 황제가 직접 점다한 차를 함께 마신 기록이 <설부삼중>에 전한다.

시대별 연표		
한국	중국	일본
1082 만복사 건립 1085 금강도량 7일 동안 열다 의천의 입승(入承) ① ② 통도사의 장생표 ② 1090 송나라 상인 150명이 토산품을 바침 1095 전쟁 송나라 다약(茶藥) 하사 1097 흥왕사에 다기, 다포 하사 ③ 1099 왕이 상장사에서 차를 올리다 ④	1080 각다법·다미법 개정, 사물기원(事物記原) ⑥ 1082 휘종의 등극 ⑦ 1085 <동재기사(東齋記事)> ⑧ 차전매제 다시 실시 ⑧ ⑨ 심괄(沈括), 용번(龍蕃)의 활동 ⑩	1083 원가(源義家)의 3년전쟁 ⑪ 투다 풍습
고려시대	송대	헤이안 시대
1102 해동통보 발행, 우편분제를 행함 1104 왕이 옷과 다량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다 1107 신하들에게 다와와 은함을 내림 1108 동소(銅所) 자기소 등 불공물을 과다하게 징수해 장인들 도주 ⑬ 최사추와 궤여에게 차를 내리다 ⑬	1102 진사도의 죽음 ⑪ 1103 선원청규 간행 ⑫ <대관다론> ⑫ ⑬ 채경(蔡景)의 활동 ⑬	1102 백하상왕(白河上王)의 죽연에 다례를 행함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금강경의 주장자 84,000장경의 엔솔로지

빈손도 내려놔라

도서출판 여래. 저자 둔세승. A4 size 100% 칼라양장판 867쪽

불교사상 처음 금강경을 의지해서 그동안 배우고 탁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둔세승(세간을 등진 출가자)이라는 필명으로 밝힌 4차원적인 삶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나는 알고있다라는 현대인들에게 1,000여편(세계불교문화유산)의 컬러 이미지와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밀레니엄 화두

정가 / 상하권 100,000원

연락처 : 021515-8289 053)744-9009

www.buddhapia.cc

보면 보인다!?